

공무 해외연수 보고서

(베트남 , 캄보디아)



금 천 구 의 회

이 보고서를
해외비교시찰(베트남,캄보디아)에 대한
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3. 5.

의 장 김 두 성 (인)	부의장 강 태 섭 (인)
의 원 류 은 무 (인)	의 원 채 인 묵 (인)
의 원 김 영 섭 (인)	의 원 정 병 재 (인)
의 원 강 구 덕 (인)	의 원 서 복 성 (인)
의 원 박 만 선 (인)	의 원 우 성 진 (인)



목 차



I. 연수개요	-----	1
II. 연수일정	-----	2
III. 연수참가자	-----	3
IV. 연수내용		
1. 연수도시	-----	11
2. 주요시설 방문 현황	-----	24
3. 비교시찰을 다녀와서	-----	26

I

연수개요

- 기 간 : 2013. 4. 25(목) ~ 4. 30(화) (4박 6일간)
- 방 문 국 : 베트남(하노이), 캄보디아(씨엠립)
- 방문인원 : 16명(의원 10명, 수행직원 4명, 집행부 2명)
- 방문목적
 - 「한·베트남 수교 20주년」 맞아 경제, 문화, 교육등 다각적인 교류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협력방안 모색
 - 베트남의 지역경제, 복지시설 등을 비교분석하여 우수사례 파악
 - 문화유산 보존현황 및 문화관광 정책의 추진실태 등 새로운 정보 수집
 - 한인회 방문하여 한인 비즈니스 현장 확인 및 격려 등
- 주요 방문지
 - 베트남 하노이 한인회, 캄보디아 씨엠립 시청사 등 방문

II

연수일정

월일 (요일)	지 역	방문지	업무수행 내용	비 고
4/25(목)	· 인 천	· 인천 국제공항 출발	· VN(417)편 10:35출발 (비행시간 : 4시간 30분)	
	· 베트남	· 베트남 하노이 도착	· 한인 비즈니스 현황확인	

		• 베트남 하노이 한인회 방문 • 한기동사원 비단광장 방문	- 및 한국·베트남간 문화교류 현황 등 파악 비교견학 • 문화유산의 운영·관리실태 파악 및 문화유적지 탐방	
4/26(금)	• 베트남	• 베트남 국립역사박물관 방문 • 베트남 문화유적지(하롱 베이) 방문	• 학술적 가치가 있는 베트남 국립역사 박물관 전시관 문화 탐방 • 세으로 선정된 지역으로 계7대 자연경관문화·관광자원 보존실태 견학·자료수집	
4/27(토)	• 베트남 • 캄보디아	• 하노이 도착 • 베트남 재래시장 견학 • 씨엠립 공항 도착	• 베트남 전통 및 재래시장 (삼육거리)시범운영 모범 사례 시찰 및 견학 • 캄보디아 지방제도 및 주요시책 사업 추진현황 등 시찰	
4/28(일)	• 캄보디아	• 캄보디아 국립민속촌 방문 • 타프롬 사원 등 문화유적지 견학	• 유명 건축물과 다양한 민족의 풍습 등 문화유적지 운영·관리 실태 파악 및 견학	
4/29(월)	• 캄보디아	• 프놈프롬 수원마을 방문 • 다일 봉사 공동체 방문 • 톤레삽호수 및 수상촌	• 지방자치단체의 국제 구호사업 조성마을 실태 파악 • 국제적인 복지재단 방문 씨엠립 비전센터 주요시설 견학 및 급식·교육·의료 지원사업 등 비교시찰	
4/30(화)	• 호치민 • 인천	• 호치민 국제공항 출발 • 인천 국제공항 도착	• VN(408)편 07:20 도착 (비행시간 : 5시간) • 귀국 후 해산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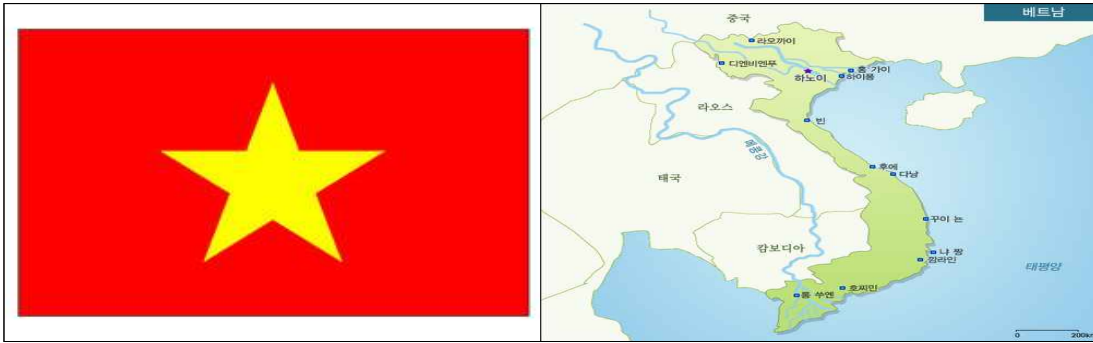
연수참가자

연번	직 위	성 명	비 고
1	의 장	김 두 성	시찰 단장
2	부 의 장	강 태 섭	부단장
3	의회운영위원장	우 성 진	단원
4	행정재경위원장	박 만 선	"
5	복지건설위원장	채 인 목	"
6	의 원	강 구 덕	"
7	"	김 영 섭	"
8	"	류 은 무	"
9	"	서 복 성	"
10	"	정 병 재	"
11	사무국장	이 홍 상	
12	전문위원	최 봉 주	
13	행정 7급	권 태 훈	수행직원
14	행정 7급	유 병 소	수행직원
15	위생과장	지 상 학	금천구청
16	행정 7급	방 귀 연	금천구청

IV

연 수 국 가

베 트 남



□ 현 황

【 일반현황 】

- 위 치 : 인도차이나 반도동부, 중국과 라오스 캄보디아와 국경 접하고 있음
- 국 명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 인 구 : 9,015만명 (하노이:623만명, 호치민:606만명)
- 면 적 : 33만 341 km^2 (한반도의 1.5배)
- 수 도 : 하노이 (Hanoi)
- 민족구성 : 베트남족(89%) 외 53개 소수민족, 화교
- 종 교 : 불교(80%), 카톨릭(9%) 등
- 언 어 : 베트남어
- 행정구역 : 5개의 중앙직할시, 59개의 성

【 정 치 】 : 사회주의공화제(공산당 일당제)

- 공 산 당 : 국가와 사회를 영도하는 유일세력으로 국가, 국회 정부의 활동을 지도(5년마다 전당대회)

- 국 회 : 국가의 최고 권력기관
- 정 부 : 국회의 집행기관으로 국가의 최고행정기관
 - 주 석 : 국가원수로서 대내외적으로 국가를 대표, 인민군대의 최고통수권자
 - 총 리 : 임기 5년, 주석의 추천으로 의원 중 선출

【경 제】

- G D P : 890억불 (1인당 GDP : 1,024불)
- 교 역 : 1,434억불 (수출 : 627억불, 수입 : 807억불)
- 경제성장률 : 6.23%

【경제활동】

- 베트남 국민의 74%는 농사에 종사 → 농업은 베트남 경제의 기반
- 홍강과 메콩 강 삼각주의 비옥한 땅을 중심으로 쌀농사가 발달 → 세계 3대 쌀 수출국
- 노동력을 중심으로 한 섬유 산업과 경공업이 중심
- 1990년대부터는 시장을 해외에 적극적으로 개방하여, 국가 정책 위주의 산업경제 구조를 자율적 변화의 노력

【교 통】

- 1980년대 시장이 개방되면서 차량과 오토바이가 급속하게 늘어났으며, 아직까지는 오토바이가 대중적인 교통수단
- 베트남의 오토바이는 약 2천만대에 달하며, 한가구당 한 대 소유
- 대중교통은 씨클로, 썬옴, 버스, 택시, 지하철이 있지만 노선이 크게 발달하지 않았으며, 장거리 교통수단으로는 철도와 항공이 있음.

【민족적 특징】

- ‘세계에서 가장 낙관적인 나라’로 선정(갤럽 국제 조사기구 57개국 48,500명 조사결과)
- 우리나라 만큼 교육열도 한몫, 교육제도는 굉장히 발달, 베트남 내의 문맹률은 2%도 채 안됨.
- ‘변화결심(업무, 운동, 균형있는 생활등의 분야)’에서도 베트남 국민은 변화에 대한 각오를 다지는 1등 국가로 선정(세계적 마케팅조사 회사 AC닐슨 측정결과)
- 양성평등의식이 강하고 여성 대부분이 산업 활동에 참여
- 가족 및 개인주의 성향이 강함.

【주요 국내정세 및 특기사항】

- 2006.4월 10차 전당대회 결과 개혁. 개방정책 적극 추진방침을 천명하고 2020년까지 근대화, 산업화된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함.
- 개혁·개방과정의 부산물인 소득격차 심화, 각종 범죄, 당 및 관료의 부정부패 등이 정치·사회적 불안요인으로 작용

【대외관계】

- 대외적으로 ‘독립, 자주, 주권존중’ 및 ‘다양화, 다변화’의 외교정책 기조로 “세계 모든 나라와의 우호협력 관계 증진”을 표방
 - ’95. 7 ASEAN 가입 후 아세안내에서의 위상강화 노력 및 실질적인 협력증진 모색
 - 인접국과의 지속적인 유대강화 및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증진에 노력

○ 국가별 협력관계

〈한국〉 - 13세기 초 고려 고종때, 베트남의 리 왕조 멸망하자 리 왕조의 왕자는 고려에 귀화하여 화산이씨로 개명(베트남과 우리나라의 첫 번째 접촉), 이후 현대에 들어 남북으로 나뉜 베트남이 각각 남한, 북한과 단독 수교를 하였지만 공산당에 의해 통일된 후에는 북한과의 수교만 유지되었다. 1964년 베트남 전쟁때 미국의 요청에 의해 우리나라도 참전하여 베트남쪽에 많은 피해를 입혔다.

이에 우리나라는 1992년에 공식수교가 재개된 후 전쟁의 피해에 대해 베트남에 공식적으로 사과하였고, 현재는 경제·문화 등에서 여러 가지 교류를 하고 있다. 베트남은 1980년대 이후 사회주의 경제 정책에서 자본주의로 방향을 바꾸었고, 빠른 속도로 경제를 성장시킨 우리나라를 모델로 삼아, 유전개발과 이동통신 분야 등에서 활발하게 협력

〈중국〉 - 2001년 이후 정상급 인사의 상호방문을 통해 상호 교역 활발

〈일본〉 - 최대 투자국이며 제1의 무역상대국으로 경험분야에서 일본측의 지원을 모색 중

〈북한〉 - 전통적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실질 협력관계는 미미하며, 북한 핵문제나 미사일 발사문제 등에 관해 중립적인 입장 견지

〈미국〉 - 무역협정발효(01.12)로 정치·경제적 관계 정상화 추진

〈유럽〉 - 외교의 다방화 정책에 따라 유럽국가들과의 관계개선 노력 경주

캄보디아



□ 현 황

- 위 치 : 인도차이나 반도 북동부(베트남, 라오스, 타이와 접경
동경 103°~107° 북위 10°~14°)
- 수 도 : 프놈펜(Phnom Penh)
- 인 구 : 1,440만명(2011년 기준)
- 기 후 : 고온다습 (연평균:27℃)
- 면 적 : 181,035km²(남한의 1.8배, 한반도의 약 80%)
- 주요도시 : 프놈펜(Phnompenh), 크라티(Kracheh), 땃담방(Battambang)
- 언 어 : 크메르어(Khmer Language), 프랑스어(French), 영어(English)
- 민 족 : 크메르족(90%), 베트남계(5%), 중국계(1%), 기타(4%)
- 문맹률 : 69% (1996년 현재)
- 종 교 : 소승불교(90%), 기타(10%)
- 교 육 : 6-3-3제, 초등학교와 중학교(9년) 의무교육
- 국내 총생산(GDP) : 159억 달러(2011년 기준)
- 화폐단위 : 리엘(Riel)

【국가개요】

- 정식국명은 캄보디아 왕국(Kingdom of Cambodia)국왕과 수상이 존재하는 입헌군주국이며 국가원수는 노로돔 시하모니 국왕이고, 정부수반은 캄보디아 국민당 소속인 훈센이다.
- 의회는 양원제로 국회와 상원으로 구성, 국회는 임기가 5년이며 123석이고 상원은 임기가 6년으로 61석이다.
- 동남아시아 최강의 문화를 꽃피웠던 크메르 왕조의 역사가 깃든 아픈 근대역사를 지닌 채, "앙코르 제국"의 부활을 위해 꿈틀거리고 있다.

【지 리】

- 총면적 $181,305km^2$ 으로 북서쪽으로 태국, 라오스, 동쪽과 남쪽으로 베트남, 서쪽으로, 캄보디아 만으로 둘러싸여 인도차이나반도에 자리 잡고 있다.
- 서쪽해안을 따라 태국만이 만나는 곳에는 충적토(흙과 모래가 떠내려와 쌓인 평지)가 넓게 자리 잡고 있으며, 그 주변은 산과 동쪽은 메콩강으로 둘러싸여 있다. 평야의 중심에는 메콩이 만들어낸 수장원이 풍부한 톤레삽(Tonle Sap)호수가 있다.

【경 제】

- 1998년 경제성장률이 3.7%, 1999년 11%, 2004년에 빠르게 증가하였고 낮은 미곡 가격과 국제 유가 상승이 경기회복의 걸림돌로 작용
- 국민의 75~80% 농민으로 농업이 국가산업의 근간임.
- 취약한 인프라와 원조의존형의 경제구조로 인해 제조업이나 농업 부문이 고잔을 면치 못하고 있는 반면, 풍부한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업이 호조를 보임. 외국인 관광객은 50만명을 초과하여 전년도 대비 56% 증가함.

【교 통】

- 캄보디아에서는 오토바이를 개조하여 만든 택시인 뚝뚝이가 있다.
- 철도는 전체길이가 약 603km로 프놈펜에서 바탐방을 지나 국경을 넘어 타이에 이르는 노선 등 단선이다.
- 도로는 37만 5769km로 이 가운데 4,165km가 포장되어 있으며, 베트남(사이공)~프놈펜~바탐방간 프놈펜~ 씨엠림 간 국도가 있다.
- 수로는 모두 3,700km로 90%가 메콩, 톤레사프수로이며 중요 무역항은 하항인 프놈펜과 캄포트, 크롱카오콩이 있다. 1982년 프놈펜~호찌민의 항공로를 개설·운항하고 있다.
- 1999년 현재 공항은 19개, 헬리콥터 공항은 3개 있음.

【사 회】

- 2007년 현재 인구는 1,380만명이며 인구증가율은 1.7% 출생율은 1,000명당 25명이다.
- 평균수명은 61세로 남자는 59세, 여자는 63세 평균연령이 21세로 상당히 젊은 국가에 속한다.
- 교육은 초·중등학교와 고등교육기관이 있으며, 학제는 6-3-3제(대학원 3-5년)이며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 총 9년을 의무교육으로 하고 있다.
- 빈곤이 만연하고 낙후한 학교시설과 열악한 교육여건으로 인해 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다.
- 1967년 크메르 왕립대학 개교, 1970년대 전체 대학생은 약9천명 추정, 크메르 루즈가 집권하면서 지식인들이 대량으로 학살당하고, 대학이 폐교당했다.
- 1990년 이후 대학교육이 재개되었고, 대학 입학시험 수준도 높아졌다.

【대한관계】

- 1996년 5월에 외교관계가 재개되었다.
- 2005년 현재 한국의 캄보디아 수출은 1억4천만 달러이며 기계, 직물 등이 주요 수출품이다.
- 1997년 한·캄보디아 외교관계 재개이후 무상협력사업이 대폭 증가되어 2001년 이후에는 캄보디아가 우리나라의 무상원조 수원 상위 10위권을 유지했다.
- 1991~1999년간 한국은 캄보디아에 총 277.6만 달러를 무상원조했고, 2000년도 이후 대폭 증가하여 2000~2005년 연평균 249만 달러를 지원했다.

【음 식】

- 캄보디아의 음식은 태국, 라오스, 베트남 등지의 주변국에 영향을 받으면서, 그들만의 독특한 음식문화가 형성되었다.
- 프놈펜과 씨엠립의 음식점의 증가는 중국음식과 베트남음식을 즐길 수 있게끔 되었고, 쌀은 주재료이며, 밧담방 지역(Battanbang Region)은 전통 밥그릇이다.
- 대부분의 캄보디아음식은 치낭 크테아(Chnang Khteak)이라는 중국식 요리용 팬으로 요리를 한다.

【기 후】

- 북위 10 ~ 14°에 걸쳐진 열대기후대로 연평균 섭씨25°로 년중 일정한 기온을 유지한다. 밤의 습도가 매우 높아 90%정도이고, 낮에는 80%를 유지한다.

- 11월부터 2월까지 이어지는 건기에는 22 ~ 31°C, 평균 강수량은 47mm이다. 일조시간이 평균 8시간에 이른다.
- 3월부터 5월까지의 캄보디아에 매우 무더운 날씨가 찾아온다. 평균 기온 24 ~ 37°C, 평균 강수량 70mm이다.
- 특히, 4월은 북동 몬순의 영향으로 기온이 상승하고, 강수량이 현저히 줄어든다.
- 5월부터 10월에 이르는 우기에는 남서 몬순의 영향으로 비가 많이 내린다.
- 평균기온 24 ~ 32°C, 평균 강수량 193mm이다. 특히 오후에는 장맛비를 내리면서, 거리가 넘치는 경우가 잦다.

【종 교】

- 고대시대로부터 캄보디아는 인도로부터 힌두교와 불교를 받아들였다.
- 힌두교가 보다 폭넓게 퍼져, 앙코르사원에서는 대부분의 유적이 힌두 양식을 보이고 있고, 불교 양식 또한 같이 혼재되어 남아 있다.
- 불교는 처음 소개된 13세기 때는 대승불교로 시작하였으나, 지금은 소승불교로 자리매김 하였다.

□ 베트남 하노이 한인회(2013. 4. 25)



베트남 한인회 방문



베트남 한인회 의견청취 - 이해경실장



베트남 한인회 방문 기념품 전달



베트남 한인회 도서관 시찰

- 베트남 하노이 한인회는 하노이에 거주하는 10,000여명의 교민들을 위한 순수 한인들의 봉사 단체로, 회장과 감사·총무·법률자문 등 12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되고, 구본수(현 세종피아 대표)님이 한인회 제9대 회장을 맡고 있었다.

- 현지 한국인들은 대기업에 파견되어 온 주재원이 일부를 이루고, 무역과 관광업 등 개인사업자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이곳 한인회에 대한 참여는 대기업 주재원 보다는 개인적으로 사업하는 한인들이 대체적으로 적극적이라고 한다.
- 하노이 한마음 체육대회, 한국-베트남 친선 바둑대회, 베트남 오지지원 등 한국 교민의 단합과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하노이 한인회는 하노이 내에서 의미있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한인회의 주역할은 한인 생활보호, 한인간 친목도모, 초기 이주자 지원 등의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었다.
- 한인회 운영은 초기에는 회비로 운영되었지만, 현재는 한인회 소식지인 광고료 수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한인회 월간지를 발행해 정보교류, 현안사안 안내, 행사추진 등을 소개함으로써 한인사회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하고 있었다.
- 한인회의 애로점은 자영업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음으로 국가가 인정이 않아 비자연장에 어려움이 많고, 베트남 노동자 불법체류가 강화됨으로 현지거주 한국인 비자문제에 어려움이 크다고 한다.

- 현재는 순수친목단체이지만 하노이 한인사회의 한인수와 규모가 나날이 커져가고 있으므로 향후 실질적 운영단체로 기능 확대가 필요하고, 재외한인사회에 보다 깊은 관심과 많은 지원도 필요하다.
- 하노이 한인회를 방문하면서 동포들의 따뜻한 온정을 가득히 느낄 수 있었다. 해외 교민들이 국내 변화하는 많은 정책들에 대해 갖는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돋보였다. 최근 실시되는 취학전 아동 양육수당 지원 또한 그런 관심의 결과로 재외동포 재단에서 해외 거주하는 교민들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지원한 것으로 사료된다.

□ 베트남 국립 역사박물관(2013. 4. 25)



베트남 문화 유적지 방문 기념

- 하노이 호안끼엠(땀응라오 1번지 위치)에 있는 역사박물관은 붉은색 지붕과 노란색 건물로 2층 위쪽으로는 6각 첨탑 모양의 구조물로 이

루어져 있었다. 예전에는 프랑스와 아시아 등 각국의 미술품이 전시되어 있었으나, 1958년부터 베트남 역사를 전하는 역사 박물관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박물관 내부는 역사관과 민족관 두 부분으로 나뉘어 구석기, 신석기 시대의 유물, 고대 베트남 문명 시대 유물, 동 싼 유물 등 5천여 점이 연대순으로 전시되어 있었다. 1층에는 철기시대의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고, 2층에는 석기, 도자기, 공예품 등을 시대순으로 배열해 알기 쉽게 진열되어 있었고, 공산당의 역사도 함께 진열되어 있었다.

역사박물관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08:00 ~ 11:30 오후 1:30 ~ 4:00 관람이 가능하다고 한다.

특히 동굴벽을 장식하고 있던 동물의 얼굴모양 벽화, 철기옹관에 새겨진 자잘한 문양들, 동물조각, 힌두교의 다양한 신들이 인상적이었고, 다낭 인근 미썬 유적지에서 가지고 올라온 참파왕조의 조각품들이 전시돼 있었는데 감탄사가 나올 만큼 정교하고 보존상태가 우수하였다.

- 시사점은 베트남 지역의 인류문명과 베트남의 고대부터 근대까지의 역사유물 관람을 통하여 베트남 역사를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고, 반면에 전시물에 영어 등 설명부족과 이해가 쉽지 않은 설명은 전반적인 베트남 문화와 역사이해에 약간의 아쉬움을 주었다.

□ 베트남 호치민 대통령궁(2013. 4. 25)



- 구 월남 정부 대통령궁이었던 곳으로 현재는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통일궁이라고도 불리는 이곳은 원래 프랑스의 지배를 받던 시절 프랑스에서 지었고, 독립한 뒤에 대통령궁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독립궁의 1층은 각료 회의실과 식당, 2층은 대통령 접견실과 국가 주요 서류 제출실, 3층은 대통령 전용식당과 극장, 4층은 전용 연회장이 있다. 건물의 지하에는 전쟁당시 종합 상황실이 실물 그대로 전시되어 있어 당시 긴박한 상황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고 한다.
- 시사점은 베트남의 독립 영웅인 호치민에 대한 베트남 국민들의 사랑은 상상이상으로 높았으며, 공산주의 국가답게 대통령궁과 광장, 경비대의 경비가 삼엄하고 대통령궁을 찾는 베트남 국민들의 자세 또한 경건하였고, 베트남 국민들의 자국에 대한 애국심과 자긍심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 베트남 국제회의장 (2013. 4. 25)

○ 베트남 국제회의장은 1998년 12월에 김대중 대통령이 베트남을 공식 방문하여 국제회의장에서 동남아 국가연합 9개 국가, 한·중·일 정상 회의를 개최 하여, 양국은 김대중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을 계기로 양국 지도자간 한때 불행했던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인 우호관계 발전을 위한 강한 의지를 확인한 것으로 평가된 곳이기도 하다.

○ 베트남 전체 건축수준에 비해 높은 차원으로 건립된 시설로 베트남의 정치, 경제, 위치적인 이유로 인근 상해, 서울 보다는 많지 않지만, 다양한 국제 행사를 개최하고 있었다.

□ 베트남 하롱베이 방문 (2013. 4. 27)



베트남 국제회의장 방문



베트남 하롱베이 방문 기념

□ 베트남 하노이 재래시장 방문 (2013. 4. 27)



베트남 하노이 재래시장 방문 및 시찰

- 하노이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으로 삼육거리, 찌 하노이로 불리기도 한다. 삼육거리는 하노이 구 시가지를 대표하는 거리다. 13세기 하노이에 36개의 상인조직이 있었는데 각각 한거리씩 맡아 정착함에 따라 36거리가 되었다고 한다.
- 식품류, 공예품, 의류, 신발, 가방, 음식점 등 각 거리마다 특화되어 있는데 여기서 구입할 수 없는 것은 베트남 어디에서도 구입할 수 없다는 말이 있을 만큼 거대한 만물상이다.
특징적인 것은 간판이 따로 없어도 여기는 옷가게거리, 인형거리 등 단번에 알 수 있었고, 이동식 노점상의 공통점은 모두 여자가 운영하고 있었다. 무거운 과일 등 무거운 것을 지고 돌아다니며 파는 여자들을 보며 베트남 여자들의 생활력을 엿볼 수 있었다.

○ 시사점은 하노이 재래시장은 서울 남대문 시장보다 큰 규모의 시장으로 베트남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엿볼 수 있는 곳이었다.

특히, 식품류, 공예품, 의류, 신발, 가방, 음식점, 노점상 등 다양한 물건들이 판매되고 있었다. 가짜상품들이 전시되고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 특이하였다. 이동식 노점상은 여성이 운영함으로, 베트남 여자들의 강한 생활력을 엿볼 수 있었다.

☐ 캄보디아 유적관리위원회 방문 (2013. 4. 28)



캄보디아 유적관리위원회 방문

○ 캄보디아 국립 문화재연구소격인 유적관리위원회는 1995년 2월에 앙코르왓 유적관리와 연구를 담당하는 재단이며, 캄보디아 정부내 기관으로써 앙코르왓 보존과 관리를 총괄하는 기관이다.

독일, 일본, 프랑스팀 등 선진국들이 정부의 예산을 들여 앙코르 유적지를 복원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중국은 우리보다 경제규모는 크지만

실질적인 1인당 GNP는 한국보다 낮은 중국조차 앙코르복원사업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한국은 그 어느 유적도 맡고 있지 못하다. 우리 역시 이곳의 복원사업에 참여하여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우리 문화유산보존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아쉬움이 남았다.

- 천혜의 자연환경과 관광자원을 보유한 국가인 만큼 유적관리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시스템은 나름대로 잘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앙코르 왓트 등 주요 관광유적지에 대한 보수 등을 외국 자본에 의지해 처리하는 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 진다.

□ 캄보디아 민속촌 방문 (2013. 4. 28)



캄보디아 민속촌 방문



캄보디아 민속촌

- 캄보디아 민속촌은 국립 문화재연구소격으로 21만 m^2 의 넓은 용지에 수상부락 등 11개 문화마을로 규모와 시설면에서는 구성이 잘 되어져 있었고, 유명 건축물과 다양한 민족의 풍습과 관습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곳이었다. 각 마을에서는 소수민족의 춤이나 전통혼례, 놀이문화

등 다채로운 전통행사를 재현하고 있었다. 그밖에 앙코르와트 전시관을 비롯해 유물과 주요인물의 밀랍인형을 갖추어 놓은 박물관도 관람하였다.

- 캄보디아 민속촌은 영어표지판 등 편의시설은 대체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었지만 외국인에 대한 설명과 안내가 부족하여 다소 불편한 점도 있었고, 민속촌은 캄보디아의 다양한 민족 문화를 표현하려고 하였으나 프로그램의 구성과 내용이 다소 미흡하였다.

□ 캄보디아 프놈크롬 ‘수원마을’ 방문(2013. 4. 29)



캄보디아 프놈크롬 수원마을 방문



캄보디아 프놈크롬 수원초등학교 방문

- 캄보디아 시엠립주 프놈크롬 마을은 시엠립 중심에서 약 10km 떨어진 410가구 2800여 명이 사는 작은 마을입니다. 가구당 평균 소득이 148달러 수준으로 최고 빈민지역 중 하나입니다. 경기도 수원시는 캄보디아 시엠립주와 지난 2004년 국제자매결연을 체결하고 2007년 프놈크롬 마을을 수원마을로 선정한 뒤 1단계 지원사업으로 학교, 마을길, 도로, 교량, 공동화장실, 공동우물 등 기반시설

등을 지원했습니다

캄보디아 수원마을 2단계 지원사업은 생활환경개선사업, 교육지원 사업, 아동보호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주로 프놈크롬 마을 주민들의 자활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담고 있습니다.

-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우리나라는 수십 년 동안 해외 여러 나라의 원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세계 경제강국으로 성장했고, 이제 우리가 가난한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도와야 할 때입니다. 비록 우리가 돕는 첫 걸음은 미약하더라도 꾸준히 관심을 보이고 협력하고 기술을 전수하다보면 언젠가 제3세계 가난한 사람들도 스스로 일어서는 자립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국제도시로 가는 길은 바로 지구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따뜻한 시선을 바라보고 함께 손잡는 일입니다.

□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방문(2013. 4. 29)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시찰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방문기념

- 주요방문지 마지막 일정은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방문이었다.

천사같은 미소로 캄보디아 다일공동체를 이끌어 가고 있는 김혜경 원장님이 반갑게 맞아 주셨다. 방문단 일행은 밥퍼 무료급식시설, 유치원 등 주요시설을 돌아보고, 기념품 전달식을 후 간담회를 하였다. 원장님이 다일 공동체의 연혁과 주요사업, 운영상 애로점 등을 설명하였다. 캄보디아 다일공동체는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추구하는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고자 최일도 목사가 2004년 3월 설립하였으며, 캄보디아 씨엠립, 수상 빈민촌 지역, 프놈끄라음 마을, 프놈펜 약 11천 가구의 7,000여명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밥퍼, 빵퍼, 도서관, 유치원, 방과후 교실, 비전센터, 조선소, 클리닉 등을 운영하고 있었다.

1일 1,000여명의 아이들이 이곳을 찾아오고, 200~300명의 자원봉사

가 아이들을 돌보는 등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곳 캄보디아 다일공동체에서 33개의 사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킬링필드에 인접한 프놈펜과 씨엠립에서 집단 빈민촌 결식아동들을 위한 무료급식도 실시하고 있고, 운영비는 1년에 6억 정도(월 5천만원)로, 예산 운영에도 어려움이 커, 많은 사람들의 동참과 적극적인 지원을 필요로 한다.

○ 캄보디아 다일 공동체의 지역적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주거환경은 집은 나무와 바나나 껍질로 만들어, 비와 햇빛을 면하는 수준으로 오염된 물가위에 살고 있어 말라리아, 뎅기열 등을 유발시키는 환경에 전적으로 노출되어 있었음.
- 경제활동은 뜯레삽 호수에서 고기를 낚아 판매하거나, 관광객 상대의 호객행위를 통해 하루 한가족 US \$1~\$2 수준의 생활을 하고 있었다.
- 교육환경은 인근 국립초등학교 1개, NGO 운영 초등학교 1개 운영중임.
- 의료환경은 기본적인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하여 지불능력 부족으로 병원을 이용할 기회가 낮은 편이다.

○ 캄보디아 다일공동체의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 무료급식지원사업인 『밥퍼』는 만 14세 결식아동 대상으로 월 평균 하루 1,200명의 프놈펜 빈민촌 아동마을과 씨엠립 뜯레삽 빈민촌 결

식 아동들에게 무료급식 지원하는 사업이다.

- 빵퍼지원사업인 『빵퍼』는 먼 거리에 거주하고 있거나 우기철에 이동이 어려운 극빈층, 인근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빈민촌,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매달 24,000개의 빵을 지원하고 있다.
 - 보건의료사업인 『다일천사클리닉』는 프놈프라움, 톤레삽 수상 빈민촌을 중심으로 한 무료진료 및 기초보건사업으로 마을 이동 진료, 구충제지원, 분유지원 등을 하고 있다.
 - 『다일 조선소』인 KOICA는 수상빈민촌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자녀의 출석률 증가를 위한 배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 현지 다일교회 주일공동예배는 씨엠립 다일비전센터에 있는 아동부 400명, 청소년부 100명, 스룩뿌억에 있는 400여명 어린이와 지뢰 피해자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 혈벗고 굶주린 어린이에 대한 구호활동에는 많은 비용과 봉사의 손길이 필요한 만큼 한국과 국제기구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며, 캄보디아를 비롯하여 세계 각국에서 벌이고 있는 다일공동체의 봉사활동에도 큰 감동을 받았으며,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다음에도 방문하여 봉사하여 나눔을 실천하리라는 다짐으로 우리 일행은 발걸음을 옮겼다.

- 한·베트남 수교 20주년을 맞이하여 경제·문화·교육 등 다각적인 교류와 지역경제 활성화 협력방안, 한인 비즈니스 현장 확인 등 모색하기 위하여 방문한 금번 베트남·캄보디아 비교시찰을 통하여, 베트남인이 민족적 자긍심과 국가발전에 대한 의지가 높아 동남아 지역에서 발전가능성과 영향력이 커지고 있으며, 베트남과 한국간의 경제, 문화, 사회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또한 막연하게 우리보다 낙후된 후진국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베트남 사람들의 국민성을 이해하고 많은 것을 배우는 유용한 시간이었다. 이들은 수 백년 이상을 이어온 중국과 프랑스의 식민지 생활속에서도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저항 운동을 펼쳐, 다른 국가의 속국이 아닌 독립국가로서 지켜 왔기에 베트남 국민의 자부심은 상당하고, 그들은 동남아 어느 나라보다도 부지런하고 재주가 많은 국민으로 베트남 내 한인들의 생활과 경제활동은 발전하고 있었으며, 한국에 대한 이미지도 매우 긍정적이었다.

베트남 하노이 한인회 방문으로 동포들의 따뜻한 온정을 느낄 수 있었고, 하노이 한인회의 역할로 한인 생활보호, 한국 교민의 단합과 한

국과 베트남 양국의 친선 도모 등 다양한 활동이 펼쳐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었고, 해외 교민들도 국내 변화하는 많은 정책들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한인사회의 한인수와 규모가 나날이 커져가고 있으므로 향후 실질적 운영단체로 기능 확대가 필요하므로 재외한인사회에 대해 보다 깊은 관심과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 천혜의 자연환경과 관광자원을 보유한 캄보디아의 문화관광자원은 부러울 정도였으며, 문화관광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캄보디아 정부의 보다 면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 정부와 코트라, 민간단체들을 통한 인적, 물적 지원을 통한 캄보디아와의 교류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 금천구도 캄보디아의 어려운 시설과 단체에 대한 지원, 자매 결연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으로 미래 한국의 확실한 우방국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협력할 필요성이 있다.

- 베트남과 캄보디아 비교시찰을 통해 다른 국가나 국민에 대해 갖고 있는 선입견에서 벗어나 그들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고 금번 비교시찰과 일련의 문화교류를 통해서 금천구의회 의원의 견문을 넓히고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